

내전성 연속성 발성장애의 음성학적 및 근전도학적 진단 특성

김형태*, 조승호, 김민식, 선동일 박영학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배경 : 내전성 연속성 발성장애의 원인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며 객관적 진단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다.

목적 : 내전성연속성발성장애 환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음성분석의 특징과 근전도를 통한 근신경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내전성연속성발성장애의 특수형(성문형, 성문상부형, 성대진동을 동반한 혼합형)각각의 환자에서 컴퓨터음성분석기를 통한 음성분석 및 후두근전도를 이용한 후두근 활동전위 및 비정상 자발전위를 측정하고 보툴리눔독소 주입 후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여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.

결과 : 내전성연속성발성장애의 음성학적 특징으로는 특수형 모두 abrupt voice break, irregular wide-spaced vertical striation, well-defined formants를 나타냈으며 근전도 검사상 발성종료시 비특이 활동전위의 증가와 자발활동전위의 증가, 그리고 비정상자발전위로서 polyphasic potential, irregular tremor를 나타냈다.

결론 : 내전성연속성발성장애를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음성학적으로는 스펙트로그램이 유용하고 근전도검사에서는 활동전위의 증가와 비정상자발전위 그리고 multi-mode상 발성종료시 비특이활동전위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진단방법으로 생각되며 보툴리눔독소의 치료경과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